

츨스키 언어사상: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 용 호

1. 들어가며
2. 언어의 다양성
3. 일상적 언어행위의 창조적 측면
4. 언어변화
5. 의미의 문제
6. 나오며

1. 들어가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츨스키 언어학에 대한 기술적(技術的)인 접근이 아니다. 또한 츨스키 언어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도 아니다. 생성이론에서 최소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 츨스키 언어학이 밟아온 긴 여정을 여기서 상세하게 감론을박한다는 것은 솔직히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게다가 이 글의 주제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주제라기보다 타의에 의해 '강요된' 주제이기도 하다. 물론 즐겁게 글의 청탁을 받아들였다. 때때로 부담이 일의 능률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필자는 기호체계로서의 언어가 본

질적으로 역동적이란 점을 시간의 관점에서 논구(論究)해 왔다.¹⁾ 이 글도 이러한 개인적인 관심의 큰 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촘스키 언어학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위해 우리는 주로 60년대와 70년대 출간된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하였다.²⁾ 1966(1969)년에 출간된 『데카르트 언어학 *La linguistique cartésienne*』은 촘스키 언어학의 철학적인 전통을 명시적으로 밝혀준 역작이다. 이 저서에서 촘스키는 자신의 언어학을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전통 속에 귀속시킨다. 레너버그 H. M. Lenneberg의 『언어의 생물학적 토대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1967)의 서문에 실린 「언어의 형식적 본성 *La nature formelle du langage*」(1969)은 촘스키 문법의 초기에 해당하는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촘스키는 언어학과 생물학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다.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촘스키의 손을 빌어 “생물학적 자연주의”³⁾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1968년에 출간된 『언어와 사고 *Language and thought*』는 언어학이 인간 정신의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기여했으며, 또한 (현재) 기여하고 있고, 나아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 작품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언어학과 일반 심리학이 맺고 있는 관계의 본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1975년에 출간된 『언어에 대한 성찰

1) 필자의 줄고 가운데 다음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와 시간」(『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0),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와 시간』(박이정, 2000), Saussure et Lacan: autour du probleme du temps(*Linguistique et Psychanalyse*, 2001), *Le probleme du temps chez Ferdinand de Saussure* (L'Harmattan, 2002).

2) 제목을 불어로 표기한 책은 불어 번역본을 참조했고 영어로 표기한 책은 영어 원본을 참조했다. 출판연도는 원본의 출판연도를 먼저 표기하고 괄호 안에 번역본의 출판연도를 삽입하였다.

3) 생물학적 자연주의는 대부분의 영미 철학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철학자 존 실 J. Searle의 『지향성 *l'intentionnalité*』(1983, 274) 참조.

Reflections on language』은 쭈스키 문법 개념을 철학사적 관점에서 해명한 책이다. 2년 뒤 일련의 강연을 책으로 엮어 펴낸 『형태와 의미에 관한 소고 *Essai sur la forme et le sens*』(1980)는 확대표준이론의 틀 속에서 쭈스키의 언어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문법의 주된 기능이 “음의 세계”와 “개념의 세계”를 중재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쭈스키의 핵심적인 사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⁴⁾ 소쉬르와는 달리 쭈스키의 경우에 이 두 세계의 결합은 기호학적 단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산출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저서의 대부분이 쭈스키 언어학의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물론 쭈스키 언어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해 왔고 초기에 설정했던 대부분의 가설들도 최소주의 이론에 이르게 되면 유명무실해진다. 하지만 기술적인 발전 혹은 변화 속에서도 쭈스키의 언어사상은 초기의 철학적인 기초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변한 것은 기술적인 표층구조이지 사상적인 심층구조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열거한 초기 혹은 중기의 문헌들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쭈스키 언어학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출판 연도에 따라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나름대로 몇 가지 반복되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 두 가지 관점이 작용했음을 밝혀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철학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관점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 i) 언어의 다양성
- ii) 일상적 언어행위의 창조적 측면

4) N. Chomsky, 1977(1980), p.35.

iii) 언어변화

iv) 의미의 문제

다소 자의적으로 보이는 이들 세부주제들은 그러나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언어철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언어를 철학적으로 논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편언어 사상은 언어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쉰스키가 주장한 창조성 개념을 중심으로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언어 변화의 문제이다. 사실 언어의 다양성은 언어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⁵⁾ 우리는 쉰스키 언어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몇 가지 어려움을 의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언어의 다양성

앞서 우리는 서구 언어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5) 사실 이 문제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제 4부 「지리언어학」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언어의 불안정성 그 자체는 시간에만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리적 다양성은 결국 일반적인 현상의 부수적 일면일 뿐이다.”(소쉬르, 최승언 역, 민음사, 1990, 234쪽)

말은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요소들의 총체이며, 글은 말을 상징하는 요소들의 총체이다. 인간이 모두 동일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말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영혼의 상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다. 영혼의 상태가 재현하는 것은 사물들이며, 이 또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다. (*De l'interprétation*)⁶⁾.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거꾸로 다시 한번 재기해 보자. 세계는 하나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영국에서도 적용되고, 한국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하나이다.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또한 하나이다.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의 영혼은 하나의 세계에 상응한다. 문제는 언어의 다양성이다. 하나인 영혼을 재현해야 하는 언어는 유감스럽게도 하나가 아니다. 또한 이 언어를 모사(模寫)한 문자도 하나가 아니다. 언어의 다양성의 문제는 이처럼 표상(表象)의 문제와 더불어 서구 언어철학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된다.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의 한 방식을 알고 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의 영혼을 반영해 줄 하나의 언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 보편언어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의 꿈이 싹트기 시작한다.⁷⁾ 뵘르-루와얄 *Port-Royal*의 일반이성문법(*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도, 라이프니츠의 이상언어(*langage idéal*)도, 프레게 Frege의 형식언어(*langage formel*)도, 포더 Fordor의 사고의 언어(*langage de la pensée*)도, 존슨-레어드 Johnson-Laird의 정신 모델(*modèles mentaux*)도 바로 이러한 꿈을 실

6) Rastier 1990, p.75에서 재인용.

7)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언어학자 라스티에 F. Rastier(1990, 1991)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가장 포괄적인 안목을 제공해 준다.

현시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슘스키의 보편문법 역시 이러한 철학적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홀블트의 사상을 논의하면서 슘스키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한다.

홀블트가 보기에 언어에 대한 모든 적합한 기술은 특수한 언어적 요소들과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한한 체계로서의 생성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언어행위의 무한한 다양성의 토대가 된다. (1966(1969), 45)

슘스키 언어학은 언어의 다양성 문제를 결코 배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는다.⁸⁾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홀블트의 언어철학적 전통 속에서 슘스키 언어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언어행위의 무한한 다양성”의 기저에 놓여 있는 “유한한 체계로서의 생성 원리”인 것이다. 이처럼 슘스키의 문법 모델은 그 어떤 문법 모델보다도 언어의 다양성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이 인식되자마자— 심각한 인식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무한한 다양성”을 기술 목표로 삼고 있는 슘스키 언어학이 기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혹은 저런 자연언어—예를 들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라 이러한 경험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가능한 언어의 부류”라고 할 수 있다.⁹⁾ 언어의

8) 예를 들어 카츠 Katz의 “영어”란 개념에 대해 슘스키가 행한 비판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고스티노의 다음의 논평을 참조해 보자. “슘스키의 관점에서 언어적 다양성의 존재와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적 측면에서 방언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문제는 영어라고 하는 개념이 언어과학의 합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카츠와 같은 언어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공한다.”(Fred D'Agostino, 1986, p.30). 이 논평에 따르면 슘스키는 “영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다양한 언어현상만이 존재할 뿐이다.

9) N. Chomsky, 1966 (1969), p.48.

무한한 다양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 언어의 가능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인간 언어의 다양성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시 말해 이 곳과 저 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말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제기하는 문제는 언어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경험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흥미롭게도 쉴스키는 이러한 경험적인, 다시 말해 실제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가능한 차원의 문제로, 이상적(理想的)인 문제로 환원시킨다. 이상화된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다양성은 결국 사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문구는 결코 놀랍지 않다.

인간 언어는 자유로운 표현과 사고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언어사용의 창조적인 측면은 사고와 상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반영한다. 언어는 유한한 수단으로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한다…(1966(1969), 59)

쉴스키의 언어사상은 가장 오래된 서구의 형이상학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언어는 사고의 반영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언어의 “무한한, 나아가 가능한 다양성”은 “사고와 상상의 무한한 가능성”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언어사용의 창조적 측면”이라고 하는 쉴스키의 사상은 이러한 정신적인 무한한 가능성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¹¹⁾ 결국 쉴스키는 언어의 다양성이 제기하는 철학적인 문제를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구현된 것으로, 달리 말해 “창조성” 개념으로 해결하고 있다. 창조적인 인간 정신의 반영인 창조적인 언어사용으로 인해 인간 언어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쉴스키 언어사상의 근간을 형성하는 창조성 개념에 이르게 된다.

10) N. Chomsky, 1968, p.84.

11) N. Chomsky, 1966(1969), p.20.

3. 일상적 언어행위의 창조적 측면

촘스키 언어철학의 근간이 되는 사상적 계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은 『데카르트의 언어학』이다. 촘스키는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전적인 작업으로의 회귀는 그 당시에 —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내가 데카르트 언어학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그 시기에— 이미 잘 이해된 수많은 주제들을 재발견하게 해준다.(1966(1969), 15)

“데카르트 언어학”이란 명칭 속에 잘 나타나 있듯이 촘스키의 문법사상은 철학적으로 합리주의 전통에서 있다. 한마디로 촘스키의 보편문법은 보르-루와얄 이성문법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몇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논의에서 발견하게 된다. 17세기에서 시작해서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인 뿌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촘스키는 궁극적으로 흄볼트와 조우한다. 이 점은 사실 좀 더 긴 설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17세기 합리주의 사상이 어떤 점에서 19세기 관념론적 낭만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3세기에 걸친 언어학 사상을 “데카르트의 언어학”이란 명칭으로 하나로 엮어 낼 수 있는가? 촘스키는 이 책에서 창조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결을 시도한다. 물론 이러한 연결의 시도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성 개념만을 고리로 해서 과연 서로 다른 사상적인 전통을 아무런 유보 없이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칸

12)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보르-루와얄 이론의 현대적인, 그리고 보다 명료해진 판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N. Chomsky, 1966(1969), p.69).

트의 관념 철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¹³⁾에 이르게 되면 사실 상 츨스키의 사상적 계보는 서양의 근대 철학사와 만나게 된다. 물론 츨스키는 철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철학적 전통을 통합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데카르트 언어학”은 역사적인 범주라기 보다 개념적인 범주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언어학”이란 개념적인 범주는 츨스키의 사상적 계보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츨스키가 창조성 개념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 논쟁적인 맥락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다. 데카르트의 언어관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의 문구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해준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자신의 종(種)에 고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부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또한 일반적인 지성과도 연결되지 않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사용의 창조적 측면”이라고 부른 것 속에서 발현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능력의 고유한 특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개시하는 것이며,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데카르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온갖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합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1966(1969), 20)

“일상적 언어사용의 창조적 측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개시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외부 “자극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위에서 등장하는 “자극”과 “반응”이란 용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츨스키가 창조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논쟁적인 맥락은 자신의 사상적 계보를 밝히기 위한 단순한 역사적인 고찰이라기보다 사실은 행동주의(*behaviorism*)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츨스키의 적(敵)은 행동주의자들이며 이들의 적은 츨스키의 우군(友軍)으로 묘사된

13) N. Chomsky, 1966(1969), p.113.

다. 어찌면 바로 이러한 단순화 속에서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슴스키의 사상적 계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데카르트 언어학”의 주된 공헌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의 문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준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데카르트의 언어학이라고 부른 언어학의 근본적인 공헌 가운데 하나는 인간 언어가 예를 들어, 유사 언어인 동물의 언어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 외적 자극의 통제나, 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심리 상태의 통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의사소통의 실천적인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관찰한 것이다.(1966(1969), 56)

“언어사용의 창조적인 측면”은 “외적 자극”이나 “심리 상태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 한마디로 전적으로 자율적인 원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데카르트 언어학의 근본적인 지침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 원리가 다른 아닌 문법적인—통사적인—원리임을 잘 알고 있다. 슴스키의 문법은 “한정된 규칙의 체계”로서 “의미내용을 결정하는 심층 구조”와 “음성형태를 결정하는 표층구조”를 중재하여 “쌍을 이룬 구조의 무한한 집합”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¹⁴⁾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문법 구조는 철저하게 내적인 규칙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슴스키의 창조성은 비록 “외부 자극”이나 “심리 상태”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유한 —통사적인— 규칙의 철저한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언어사용의 창조적인 측면”은 언어의 고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이런 점에서 슴스키의 창조성은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매커니컬한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N. Chomsky, 1966(1969), p.86.

자크 부브레스 Jacques Bouveresse는 이러한 쾨스키의 창조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약 언어학과 해석학이 모두 쾨스키가 “언어사용의 창조적 측면”이라고 부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다른 의미에서이다. 전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창조성의 한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오직 규칙의 반복적용의 반영일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기계적인 설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고유한 의미의 창조성은, 즉 사용상의 창조성은 해석학적 전통의 옹호자들에게, 그리고 몇몇 해설가들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고유한 의미의 창조성이란 언어 이론가들로 하여금 어떤 유형의 언어기호의 사용과 이해라도 이를 선험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1991, 10)

그의 논의에 따르면 “고유한 의미의 창조성”은 “규칙의 반복적용”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기계적인 설명”의 한계에 얽매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모든 “메커니즘의 작용”에 기초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오직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규칙 지배적인 쾨스키의 창조성은 “창조성의 한 유형”일 뿐이며, “고유한 의미의 창조성”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쾨스키의 창조성 개념을 순수하게 통사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디지털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아날로그적인 창조성과 구분하고자 한다. 디지털적인 창조성은 규칙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서 작동한다. 규칙의 적용 영역은 통합적 관계이며, 적용 방식은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시 쓰기 규칙”은 무한한 문장의 산출 과정을 수평적인 방식으로 표상(表象)해 주고 있다. 반면 아날로그적인 창조성은 연상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직적 방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영감에 기초한 시적 창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디지털적이

든 아날로그적이든 이 두 가지 방식은 언어사용 행위가 제기하는 다양성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언어사용행위가 언어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모든 역동적인 이론은 나름대로 언어변화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언어변화

우리는 위에서 창조성 개념을 디지털적인 것과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아날로그적인 것이란 유추적인 것을 가리킨다. 비록 촘스키가 유추적인 창조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언어변화와 관련해서 유추를 비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단호하게 유추에 의한 언어변화의 설명이 단지 은유적이라고 비판한다.

언어사용의 창조적인 측면을 유추나 문법적인 배열(패턴)에 부여하는 것은 이 용어를 분명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언어학 이론의 기술적(技術的)인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1966(1969), 31).

유추에 의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호켓트 Hockett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촘스키는 이러한 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언어학자로서 파울 Paul, 소쉬르 Saussure, 예스페르센 Jespersen 등을 거명한다.¹⁵⁾ 이 목록에 보즐라스 Vaugelas와 블룸필드 Bloomfield가 곁이어 첨가된다.¹⁶⁾ 19세기에 언어변화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해 설명되었다. 하나는 음

15) N. Chomsky, 1966(1969), p. 31.

16) N. Chomsky, 1966(1969), p.89.

성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유추이다. 이 두 법칙은 상보적이다. 음성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은 언어변화는 유추에 의한 변화로 설명되었다.¹⁷⁾ 소쉬르는『일반언어학 강의』 제 3부 「통시언어학」에서 유추가 단지 통시적인 질서에 속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법적”이며 또한 “일상적인 창조”의 형태임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¹⁸⁾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법칙이 제기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해 보자. 19세기는 언어학이 규범과학에서 경험과학으로 확립되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츄스키는 유추에 의한 설명이 단지 은유적일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는가? 유추에 의해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생각인가?

우리가 보기에 이 질문 역시 츄스키가 행동주의와 벌이고 있는 논쟁적인 맥락을 참조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유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모델에 대한 모방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IMF한파”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을 때, 이 용어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 용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한국어 속에 “입시한파”라든가 “사정한파”라고 하는 복합표현들이 존재해 있었다. “IMF한파”라고 하는 신조어는 바로 이들을 모델로 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소쉬르가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른 공식¹⁹⁾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한파} : \text{입시한파} = \text{IMF} : x$$

$$x = \text{IMF 한파}$$

17)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최승언 역, 민음사, 1990), 190-197쪽 참조.

1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1990, 190-197쪽.

19)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1990, 194쪽.

촘스키가 보기에 이러한 설명 방식은 “언어행위의 창조적인 측면”을 “분명한 의미”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방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방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다. 촘스키에 따르면, “인간 언어는 모든 자극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게 사고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²⁰⁾ “혁신이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모방은 더 이상 창조의 어머니가 아니다. 창조는 “모든 자극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촘스키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많은 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문제를 덜 복잡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철학적인 맥락이 아니라, 행동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촘스키에 따르면 행동주의자들은 정신적인, 인지적인 구조를 우연한 역사적 산물이거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²¹⁾ 촘스키는 “인간행동 연구에서 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입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내적 상태를 단순히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자극과 반응의 메커니즘만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다. 행동주의에 대한 촘스키의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첨예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인간행동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을 단순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사회와 역사를 단지 외부 자극으로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

20) N. Chomsky, 1966(1969), p.32.

21) N. Chomsky, 1966(1969), p.10.

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행동주의가 지나치게 경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면 쭌스키는 외부 환경을 이상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이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레드 다고스티노 Fred D'Agostino는 쭌스키의 이러한 입장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요약한다.²²⁾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변화의 동인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요인들은 부수적인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변화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개인인 것이다. 언어변화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소쉬르, 샌더스 Sanders, 레보프 Labov,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 인과적 관점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²³⁾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언어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라는 문제와 언어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문제는 서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언어변화는 단기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장기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변화 *Sprachwandelung*』(1994)에서 켈러 Keller는 이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견해를 제공해 준다. 그는 변화의 시작은 개인일 수 있지만 변화의 과정은 반드시 집단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집단적 과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그의 설명이 타당하다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는 다고스티노의 논의는 분명히 설득력을 잃고 말 것이다. 개인적인 요소, 예를 들어 “내적 상태”는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

22) Fred D'Agostino, 1985, pp. 18-29.

23) Ibid.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언어변화의 과정은 사회적, 역사적 정황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적 상태는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행동주의의 주장이나, 외부 환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행동의 동인을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성주의나 모두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정말로 배타적이라면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배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의미의 문제

우리는 이상에서 촘스키의 언어사상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개인주의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편주의로 규정하였다.²⁴⁾ 우리는 계속해서 촘스키가 존재론적으로 실재론을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존재론적 입장이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제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촘스키의 언어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촘스키는 언어를 소리와 의미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24)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의 만남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에 대한 성찰』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를 보자: “최소한 나에게 더 고무적인 것은 언어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언어의 구조와 사용을 지배하는 추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이 원리는 단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종의 정신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생물학적 필연성의 관점에서 보편적이다”(N. Chomsky, 1975, p.36)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차원에서 우리는 언어가 소리와 의미를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해진 것을 이해하고, 의도된 의미해석이 부여된 신호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1967, 125)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소쉬르는 언어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이와 거의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사상에 대한 언어의 독특한 역할은, 개념 표현을 위한 재료로서의 음성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소리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상과 소리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단위의 상호 구분으로 귀결된다.(최승언 역, 1990, 135)

『언어 가치』의 장(章)에 등장하는 위의 문구는 소쉬르의 언어관이 근본적으로 기호학적인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상과 소리의 결합으로 기호학적 단위가 형성된다. 소쉬르에게 이 과정은 “신비로운” 과정으로 남아있다²⁵⁾. 반면 쭈스키는 이 과정을 문법적 과정으로 명료하게 정의한다: “한 언어의 문법은 이상적 능력의 모델로서 소리와 의미, 음성 표상과 의미 표상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설립한다.”²⁶⁾ 이상적 능력의 모델로서 쭈스키 문법은 주지하다시피 보편문법이다. 보편문법은 보편음성학과 보편의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문구는 쭈스키 문법의 구조를 명료하게 잘 요약해 준다.

이처럼 언어의 일반적 자질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세분된다. 보편적 음성학과 보편적 의미론에 대한 연구. 이 두 주제는 이상적 형태와 의미 내용의 표상과 관련되어 있다. 보편문법 이론은 자연언어가 한 문장의 형태와 그 의미 내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다룬다. (1967, 132).

25) 페르다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1990, 135쪽.

26) N. Chomsky, 1967, p.126.

언어에 대한 이론은 크게 보편음성학과 보편의미론 그리고 보편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편문법이 아니라 보편의미론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언어이론의 완결성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편음성학과 보편의미론 그리고 보편문법을 포함하는 완벽한 문법이론이 지닌 경험적인 결과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달려 있다. 이 이론이 제공하는 장치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의미해석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1967, 138).

놀랍게도 완벽한 문법이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통사론적인 조건이나 음성화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의미론적인 조건이다. 만약 의미기술이 불충분하다면 어떤 문법이론도 결코 완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문법이 소리와 의미를 중개하는 것이라면 의미 기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법 이론 역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촘스키 문법 이론은 아직 완성된 이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음성학에 견줄 만한 보편의미론이 아직까지 완성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촘스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의미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층구조에서 완벽하게 의미기술을 제공해 보려고 했다. 촘스키가 든 프랑스어 표현인 “bon couteau”(좋은 칼)의 예를 잠시 살펴보자.²⁷⁾ “bon couteau”는 일반적으로 “잘 자르는 칼”을 의미한다. 칼의 기능과 가치 평가가 동시에 작용해서 이러한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bon couteau”는 “un couteau qui coupe bien”(잘

27) N. Chomsky, 1967, p.136.

자르는 칼)을 의미한다. 그런데 “bon couteau”라는 표현이 “c’est un bon couteau pour creuser”(찌르기에 좋은 칼)라는 문장 속에 등장했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촘스키는, 이러한 의미해석의 차이가 통사구조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bon couteau”가 갖는 의미의 중의성은 통사적 구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bon couteau” 그 자체는 의미론적으로 중의적이다. 아니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해 비결정적이다. 의미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구체적인 담화 속에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해당 표현의 의미해석을 결정짓는 것은 통사적 구조라기보다 이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어휘의 의미자질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bon couteau”가 “couper”(자르다)라는 어휘와 함께 등장했느냐, 아니면 “creuser”(찌르다)라는 어휘와 함께 등장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의미의 문제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사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기대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의미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문제는 의미해석의 차원이 어디이냐—예를 들어 심층구조이냐 표층구조이냐—라는 문제보다²⁸⁾ 더 근본적인 의미론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의미론의 자율성이 제기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의미의 정의에 대한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촘스키는 다음의 문구에서 비

28) 촘스키는 의미 해석이 주로 심층구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표층구조에서도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표층구조 역시 비록 덜 제한적이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기서 더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1967, p.139). 이러한 유보는 역설적으로 촘스키에게 의미의 문제가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써 사실상 개별언어학의 경계를 벗어나 보편언어학을 지향하게 되었다. 보편언어학이 가능한 언어의 집합을 다룬다면, 보편문법은 가능한 문장의 집합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쉰스키는 창조성이란 자질을 가능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부여한다. 비록 쉰스키가 행동주의를 적절하게 비판하는 데 성공했지만 창조성 개념을 통사론적인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의미생성의 무한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추 현상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창조성 개념은 나름대로 언어 체계의 역동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에 대한 모든 역동적인 이론은 나름대로 언어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쉰스키의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언어변화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어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밝혀 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의미의 문제를 중심으로 왜 쉰스키 문법이 불충분한 이론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쉰스키에 따르면 보편의미론이 완성되기까지 보편문법은 불안정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편의미론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언어에 대한 의미 기술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소쉬르(1990),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켈러(1994), 이기숙 역, 『언어변화』, 서광학술자료사.
 최용호(2000), 「기호와 시간: 소쉬르의 순간에 대한 세가지 가설」, 기호학 연구, 한국기호학회.
 최용호(2000),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와 시간』, 박이정.

명목론이나 라는 중세 철학의 오랜 논쟁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쭌스키가 구상하는 보편의미론이 설명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언어—예를 들어 한국어나 영어—의 의미론을 기술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보편의미론은 결국 보편언어(?)의 의미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쭌스키의 보편의미론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개별언어의 의미기술은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쉬르의 다음의 문구는 얼마나 의미론적 관계가 가변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와의 기표의 관계를 매순간마다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맞서, 언어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근본적으로 무기력하다.(최승언 역, 1990, 94)

앞서 살펴보았듯이 쭌스키 문법은 의미와 소리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의 관계가 위의 인용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매순간마다” 변한다면 어떻게 이 문법을 구성해야 하는가? 보편적 범주에 기대어 문제의 해결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6. 나오며

우리는 지금까지 쭌스키의 언어학 사상을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비록 쭌스키 문법이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관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 창조성, 언어변화, 의미문제 등을 중심으로 쭌스키의 언어학 사상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쭌스키는 언어의 다양성이 제기하는 경험적인 문제를 가능한 차원의 문제로 이상화시킴으로

■ ABSTRACT

Criticism on the language thought of Chomsky:
from the viewpoint of time

Choi Yongho

There may be several approaches to the Chomskian linguistics. In this paper I take the philosophical approach instead of technical one.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language, to put it briefly, relates to the problem of diversity of human language. How to explain the fact that different language is spoken in each different region. Chomsky tries to solve this problem too.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he replace this problem in putting the question of how to explain the possible diversity of human language, instead of the factual diversity. This kind of idealization leads to difficulties in several domains of linguistic description. I especially examine some of theoretical difficulties in semantics. Meaning doesn't cease to change in every moment. In order to describe this dynamic phenomena, we need to construct a empirical model of language diversity. That's the argument I defended in this paper.

- Bouveresse, J.(1991), *Herméneutique et linguistique, suivi de Wittgenstein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Tiré à part, Paris, Editions de L'Eclat.
- Choi, Y.-H.(2001), Saussure et Lacan: autour du problème du temps, in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Paris, Editions in Press.
- Choi, Y.-H.(2002), *Le problème du temps chez Ferdinand de Saussure*, Paris, L'Harmattan.
- Chomsky, N.(1966(1969)), *La linguistique cartésienne*, Paris, Edition du Seuil.
- Chomsky, N.(1967(1969)), La nature formelle du langage, in Chomsky 1969, Paris, Edition du Seuil.
- Chomsky, N.(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Chicago/San Francisco/Atlanta, Harcourt, Brace & World. Inc.
- Chomsky, N.(1975),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 Chomsky, N.(1977(1980)), *Essais sur la forme et le sens*, Paris, Edition du Seuil.
- D'Agonstino, F.(1985), *Chomsky's system of ideas*, Oxford, Clarednon Paperbacks.

를 뛰어넘어, 통합화된 '방법론적 일원론'이 지향해야 할 틀 또한 옛사람들이 한때 고민하였던 내용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석기 시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두뇌에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의 정체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거듭거듭 흐르고 흘러 유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촘스키 교수(1928~)는 자신의 언어 철학적 입장과 관련하여, 1966년(38세)에 『데카르트 언어학』을 낸 이후, 1968년(40세, 1972년 증보)에 『언어와 정신』을 출간하였고, 1975년(47세)에 『언어에 대한 사색』을 내었으며, 1980년(52세)에 『규칙과 표상』을 출간하였다. 1993년(65세)에 『언어와 사고』를 출간하였고, 2000년(72세)에 『언어와 정신 연구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출간하였다. 지금까지 언어학자로서 자신의 30대·40대·50대·60대의 철학적 입장을 이처럼 지속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자신의 지적 발전 과정이 뚜렷이 정합적인 궤적을 보이며 완성되는 사례는 전무하다.¹⁾ 촘스키 교수는 30대와 40대에 소위 '이성

1) 어떤 이들은 여성의 패션과 촘스키 언어학이 똑같이 수시로 변한다고 우정 폄하하면서, 촘스키 생각을 다 꿰뚫어 보는 양 말하기도 한다. 비유컨대, 이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체한 것처럼 믿고서 추호도 의심치 않는 모습으로, 온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현대 학문 전통에서 이러한 발전적 변화의 전형적 사례로, 카아납(1891~1970)이 거론된다(Hintikka ed. *Rudolf Carnap, Logical Empiricist* (D. Reidel Pub., 1975)에 있는 'Homage to Rudolf Carnap' 속의 글들을 보기 바람). 스승 프레게의 생각을 이어받아 내포 의미론 체계를 완성시킨 카아납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지적 발달 과정을 스스럼없이 얘기해 주었다고 한다. 이는 줄기차게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해 가는 참다운 학자의 성실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코 변덕스러움 따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문의 전통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퇴계 이황도 직접 이러한 태도를 보여 준다. 아마 이것이 큰 학자의 풍모인 듯싶다. 특히, 인문학에서 공부를 진지하게 해 나간다면,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좁은 우물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절로 알게 된다고 필자는 소박하게 믿고 있다. 깨달음 또는 정신적 성장이란 결국 그 자신의 체험의 질과 양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